

내 책을 말한다, 『뉴노멀의 철학』



코로나19는 위기 상황의 전조로서 찾아왔을 뿐, 기후위기라는 태풍의 핵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다. (사진=unsplash)

공동주의, 뉴노멀 시대의 윤리

김재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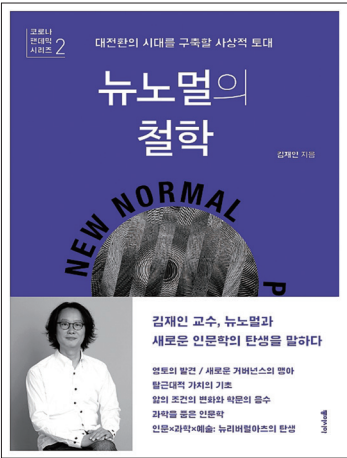
뉴노멀, 즉 이변과 이상이 새로운 정상으로 등극했다. 그래서 ‘뉴’노멀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뉴노멀에 대한 저항이 의외로 거세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뉴노멀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수용도가 높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반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들의 반발이 더 심하다. 그러나 뉴노멀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연이다. 그것은 부정한다고 사라질 허깨비가 아니다. 도대체 뉴노멀이 무엇 이기에?

뉴노멀은 허상이 아니다. 나는 뉴노멀 개념을 감염병 대유행, 기후위기, 인공지능의 오남용 등 3종의 위기가 초래한 새로운 세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했다. 이 용어는 본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펼쳐진 ‘저성장, 저금리, 고규제’ 경제 환경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됐지만, 나는 이것을 전면 개정해서 유적존재(類的存在)로서의 인류가 새롭게 처한 유례없이 새로워진 생태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인류는 이제 이 새로운 조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뉴노멀은 정치의 문제기 전에 과학의 문제다. 뉴노멀을 정치적 당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과학을 빔댄 수사로 치부하면 안 된다. 아주 많은 사람이 뉴노멀을 시간이 지나면 극복할 사고(事故) 정도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달리 외쳤다. “어떤 변화는 일시적이지만, 어떤 변화는 돌이킬 수 없다. (중략) 세상은 다시는 전과 같지 않으리라. 코로나19는 근대화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재난이자, 전체로서의 지구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해준 최초의 사건이다. 인류는 지금 ‘공포와 놀라움’이라는 느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뉴노멀의 철학』 6쪽) 하지만 재난영화 속 미친 과학자처럼 홀로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미래를 말하는 건 항상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다.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미래는 말할 수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뉴노멀이 그런 미래다. 코로나19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에 이은 ‘대격변의 마침표’일 뿐이며, 설사 인류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해도 대격변은 무효로 되



김재인 교수는 자신의 책 『뉴노멀의 철학』에서 코로나19를 근대화 이후 인류가 직면한 가장 끔찍한 재난이자, 전체로서의 지구를 직감적으로 느끼게 해준 최초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지 않는다. 코로나19가 극복되어도 이를 발미로 만들어진 새 체제는 우리 삶을 더 옥죄 것이라 걱정하는 심정은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짧은 시각에 불과하다. 자본의 운동 자체가 빼앗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은 지구 전체를 자신의 운동장으로 만들며 성공적으로 증식해왔다. 하지만 3종의 위기 아래에서는 자본조차도 변신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자본이 부품으로 삼았던 인류와 자원에 심각한 위기가 올진대, 자본 홀로 무사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호들갑이 심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10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근시안적인 걱정을 남발하면 안 된다. “IPCC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IPCC는 기후변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파리협약에 따른 2도(혹은 1.5도) 목표를 지킬 수 있는 탄소 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런 분석도 보수적으로 평가된다.”(기후위기비상행동, 2019년 8월 26일 결의) 코로나19는 바로 이런 상황의 전조로서 찾아왔을 뿐, 기후위기라는 태풍의 핵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충분히 확산하지 않았다.

“모두가 얹히고 엮인 현대 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는 허울 좋은 수사가 아니라 필수고 필연이다.”

나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전해준 경고를 기회로 삼아 기후위기를 극복할 동인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기 인류가 흑한을 극복하며 1200명의 개체만 남았을 때 발휘했던 협력과 연대를 발휘할 때이다. 그 후로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인류는 멸종이다. 아니, 꼭 종이 사라져야 멸종인 것은 아니다. 다수가 죽고 난 후 살아남은 인간의 삶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한다면 그 역시 멸종이나 다름없다. “인류는 지금 함께 사느냐 모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심지어 일부만 살아남는다 해도 더 이상 전과 같은 안전과 풍요를 누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건 죽어간 다수의 희생 아래 누렸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사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에게 최선의 선택이다.”(『공동주의를 향해』, 2020 아시아문화포럼 발표문)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나는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공동주의(commonism)’를 주장했다. 공동주의란 인류가 공동으로 누려야 할 몫에 대한 권리 주장이다. 가령 한국은 내국인뿐 아니라 이주민, 난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를 무료 혹은 최소 비용으로 치료해주고 있다. 흑자는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들을 치료하느냐고 묻는다. 어리석은 항변이 아닐 수 없다. ‘저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기 위한 가장 빠른 해법이다. 모두가 얹히고 엮인 현대 사회에서 협력과 연대는 허울 좋은 수사가 아니라 필수고 필연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간 공동 권리의 목록을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다. 격차와 차별을 느껴 사회에 분노하고 나아가 복수하게 될 약자들을 미리 배려하는 것이 이제 공동체의 의무가 되었다. 내가 살려면 남부터 살려라.